

윤리와 사상

1. 정답 : 2
해설 : 다음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성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.
2. 정답 : 3
해설 : 갑은 스토아학파, 을은 에피쿠로스 학파이다.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누리려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.
3. 정답 : 2
해설 : 갑은 칸트, 을은 갈통이다. 칸트에게 있어 평화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.
4. 정답 : 2
해설 : 다음은 석가모니이다.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하며 N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
5. 정답 : 1
해설 : 다음은 스피노자이다. 스피노자에게 있어 인간의 지복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 으로 사랑하는 것이다.
6. 정답 : 3
해설 : 갑은 케인즈, 을은 신자유주의이다. 을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의 축소를 강조한다.
7. 정답 : 4
해설 : 다음을 주장한
사상가는 흄이다. 흄은 도덕적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, 공감은 인간의 도덕적 감 정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.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은 공감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 다.
8. 정답 : 3
해설 : 갑은 성리학, 을은 양명학이다. 성리학은 성과 마음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을 주재해야 한다고 본다.
9. 정답 : 5
해설 : 갑은 공화주의, 을은 자유주의이다.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며,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.
10. 정답 : 5
해설 :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. 맹자는 백성의 본성을 교화하지 않는다.
11. 정답 : 3

해설 : 갑은 소피스트, 을은 소크라테스, 병은 듀이다. 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

12. 정답 : 1

해설 : 갑은 동학, 을은 위정척사파이다. 동학은 유교적 신분 질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

13. 정답 : 5

해설 : 갑은 모어, 을은 플라톤이다. 플라톤에게 있어 통치자들은 사유재산이 없다.

14. 정답 : 5

해설 : 갑은 도가, 을은 유교이다.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는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, 도가는 긍정하고 유교는 부정한다.

15. 정답 : 1

해설 : 갑은 공리주의, 을은 칸트이다. 공리주의의는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며, 둘 모두 도덕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.

16. 정답 : 1

해설 : 갑은 원효, 을은 혜능이다. 둘 모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이 있다고 본다.

17. 정답 : 5

해설 :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. 둘 모두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.

18. 정답 : 3

해설 : 갑은 이항 을은 이이이다.

이이는 이와기는 분리되지 않고,

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.

19. 정답 : 4

해설 : 갑은 아우구스티누스, 을은 아퀴나스, 병은 키에르케고르이다.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둘 모두 참된 행복을 위해 신앙뿐 아니라 신의 은총도 필요하다고 본다.

20. 정답 : 4

해설 : 다음 그림의 강연자는 보편적 인류애와 가족, 이웃에 대한 친밀감도 중시한다.